

##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2. 多様な 書體를 언급함
II. 연구대상 및 범주	3. 文房四友의 愛好와 관심
III.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IV. 결론
1. 古今의 書藝家를 거론함	

### I. 서론

金石을 매우 좋아하였던 歐陽脩가 滁州로 귀양을 갔을 때, 여러 해 동안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李陽冰 篆書의 으뜸이라 칭찬받는 <庶子泉銘> 탁본과,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이양빙 題名의 새로운 전서 탁본을 얻었다. 문자 해독은 매요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구양수는 전서 탁본과 함께 이를 주제로 시를 한 수 지어 매요신에게 보내면서, 글자에 대해 자문하며 答詩를 청하였다.<sup>1)</sup> 매요신은 비록 뛰어난 서예가로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1) 이 시는 《文忠集》 권53, 外集3 古詩3에 <석전시, 서문과 함께(石篆詩 并序)> 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시의 서문 “..... 서자천명이 새겨진 석각 옆에 또 이양빙의 다른 전서 10여자가 있었으니, 명문은 더욱 기이하여 세상에 드문 것이었습니다. .... 산의 기이한 자취에 대해서는 고금으로 기술이 상세하였으나, 유독 이 글자만 빠뜨려 놓았습니다. 나는 이를 심히 애석히 여겨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글자가 맞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자를 아끼지만 매성유와 소자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시 한 수를

세상에 알려지지지는 않았지만,<sup>2)</sup> 이 일화를 통해 문자에 대한 조예가 상당하였고, 아울러 서예를 감상하는 식견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매요신이 서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안목을 지녔음은 현전하는 매요신의 시 중 서예와 관련한 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매요신의 전체 시 중 서예시로 46題 47首를 선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순수 書藝家와 書體를 주제로 다룬 시 외에, 紙筆硯墨 등 文房四友를 다루고 있는 시를 모두 포함한 양이다. 단순히 양적으로 계량한다면 시의 수 47수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全唐詩》에 실린 48,000여수의 시중에서 唐代 서예시로 선별할 수 있는 시들이 총 91題 92首 정도라는 것과 비교해보면,<sup>3)</sup> 매요신의 서예시는 결코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시였으며, 아울러 탁본을 봉투에 넣어 두 분에게 보내면서, 시를 구하여 이 석각 옆에 새겨두고자 합니다.(…… 銘石之側又陽冰別篆十餘字, 尤奇於銘文, 世罕傳焉, …… 山之奇迹, 古今紀述詳矣, 而獨遺此字. 予甚惜之, 欲有所述而患文字之不稱. 思予嘗愛其文而不及者梅聖俞蘇子美也. 因爲詩一首, 并封題墨本以寄二君, 乞詩刻于石.)”에는 梅堯臣과 蘇舜欽에게 글자를 자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梅堯臣과 蘇舜欽은 石篆 답본과 이 시를 받은 후에 모두 화답시를 지었는데, 매요신은 14운으로 <구양수가 낭야산에서 얻은 이양빙의 전서 18자와 자신의 시 한 수를 보내면서 나보고 이어서 지었으면 하기에 14운을 지어 받들어 답하다(歐陽永叔寄琅琊山李陽冰篆八字并永叔詩一首欲予繼作因成十四韻奉答)>(《宛陵集》 권26)를, 소순흠은 15운으로 <구양수가 낭야산 서자천에서 얻은 이양빙 석전에 대해 지은 시에 화답하다(和永叔琅琊山庶子泉陽冰石篆詩)>(《蘇學士集》 권10)를 남겼다.

- 2) 매요신 스스로 “나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 매번 부끄러운 마음인데(我不善書心每媿)”(<答宋學士次道寄澄心堂紙百幅>(《宛陵集》 권27))라고 한 시구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고, 《文忠集》 권54, 外集4 古詩4에 실려 있는 구양수의 <글씨를 배우다. 두 수(學書二首)>에서 “소순흠이 이미 저 세상으로 돌아간 후로, 필법이 마침내 중간에 끊어졌네. 의지할 곳이라곤 채군모가 있으니, 명성은 만년이 되어 더욱 자자하네.(蘇子歸黃泉, 筆法遂中絕. 賴有蔡君謨, 名聲馳晚節.)”라고 읊은 것에서, 문학에 관해서는 늘 매요신을 칭찬하였지만, 서예에 있어서는 소순흠만 칭찬하고 매요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3)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 12.) pp.148-151에서는 시제와 내용을 고려하여 《全唐詩》에 실린 서예시를 총 67제 68수로 선별하였으나, 논문을 탈고한 후 《全唐詩》에서 서예 및 문

2,900여 수의 매요신 시 중에서, 詩學과 書學의 만남이란 주제에 맞는, 서예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을 모두 추출하여 정리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sup>4)</sup>

## II. 연구대상 및 범주

毛筆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고 이것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어 전해지게 된 것은 秦漢 이전부터였으므로, 당연히 唐 이전에도 書藝詩라 할 만한 시들이 창작되었겠지만 당대에 비해서는 미진하였다. 필자는 書藝詩가 왕성하게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唐代였으므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에 이르러 서예시가 가장 발전하였고, 이는 詩가 唐代의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였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5)</sup> 그러나 《全宋詩》를 통하여 宋代의 서예시를 추출해보니, 서예시가 가장 왕성하게 지어진 시기는 오히려 송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송대의 서예시는 매요신에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요신의 시에는 서예와 관련한 시들이 많이 보였다.

당연히 시 속에 書나 字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이 시를 서예시로 분류할

방사우를 읊고 있는 唐詩 24수를 더 찾아내어, 총 91題 92首가 되었다.

- 4) 필자는 이미 <唐代 書藝詩 試探>에서 당대 서예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므로, 본고에서는 매요신 전체 시 속에서의 서예시 특징을 분석하거나 송대 다른 시인들의 서예시와의 이동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주로 당대 서예시와 매요신 서예시의 비교를 통한 매요신 서예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5) 禹在鎬, 위의 논문, pp.147-148. 先秦 漢 魏晉代의 문학작품으로 서예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王融, 江總 등이 篆書에 관해 논한 각종 散文과, 문방사우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蔡邕의 <筆賦>(《全漢賦》, 北京大學出版社, 579쪽) 등을 들 수 있으나, 실제로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上中下 3冊, 遼欽立 輯校, 中華書局, 1995)를 통해 唐 이전의 詩歌에서는 오로지 문방사우를 읊은 시 7수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唐 이전의 시가에서 진정한 書藝詩를 찾기는 어려웠다.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서예시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詩題와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서예시를 선별하였다. 우선 詩題를 보면서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을 먼저 추출하고, 내용상 서예와 관련한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으면 이 시들을 서예시로 분류하여, 총 46題 47首를 선별할 수 있었다.<sup>6)</sup> 이들 시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梅堯臣 書藝詩 一覽表〉

	卷數	詩題	詩形	書藝家	書體	비고
1	卷7	斑竹管筆	五律			筆
2	卷10	永叔寄澄心堂紙二幅	七古			紙
3	卷11	孫主簿惠上黨寺壁胡霈然 書墨迹一匣	七排	胡霈然	?	
4	卷14	得李殿丞端州硯	五律			硯
5	卷14	忠上人攜王生古硯誇余……作詩以答	五古			硯
6	卷16	歐陽永叔寄琅邪山李陽冰篆十八字… …十四韻奉答	七古	李陽冰	篆書	
7	卷16	答宋學士次道寄澄心堂紙百幅	七古			紙
8	卷17	韓玉汝遺澄心紙二軸……今則四矣	五律			紙
9	卷17	杜挺之贈端溪圓硯	五古			硯
10	卷18	答祖擇之遺新羅墨	五古			墨
11	卷18	詠歐陽永叔文石硯屏二首(其一)	七古			硯屏
12	卷18	詠歐陽永叔文石硯屏二首(其二)	五古			硯屏
13	卷18	廣陵歐陽永叔贈寒林石硯屏	五律			硯屏

6) 본고에서는 《全宋詩》를 기본으로 하여 서예시를 선별하였고, 이들 선별된 시를 다시 朱東潤이 編年校注한 《梅堯臣集編年校注》(上·下, 上海古籍出版社, 1980.11)와 대조하였다. 《梅堯臣集編年校注》에는 송대 이후 여러 판본을 교감하여 자구의 이동을 정리해두었으므로, 본고에서는 《梅堯臣集編年校注》를 저본으로 삼고자 한다. 시의 원문에 자구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梅堯臣集編年校注》를 따랐으며, 본고에서 인용한 권수와 쪽수는 《梅堯臣集編年校注》의 권수와 쪽수이다.

14	卷19	九華隱士居陳生寄松管筆	五律			筆
15	卷22	同蔡君謨江鄰幾觀宋中道書畫	七古	鍾·王· 歐·褚	行草楷	
16	卷22	正月二十二日……蔡爲真草書數幅馬 以所用歛硯贈予	七古	蔡襄	草書	硯
17	卷22	賦石昌言家五題, 其四 懷素草書	七排	懷素	草書	
18	卷22	依韻和石昌言學士求鼠鬚筆之什…… 今以松管代贈	七律			筆
19	卷22	和石昌言以蜀牋南牋荅松管竹之什	七絕			紙筆
20	卷23	二十四日江鄰幾邀觀三館書畫……	七古	二王	楷	書畫
21	卷23	依韻和吳冲卿祕閣觀逸少墨蹟	五排	王羲之	草書	
22	卷23	觀書	七古	山陽女	魯公體	
23	卷23	依韻和睢陽杜相公答蔡君謨 新體飛草書	七律	蔡襄	草書	
24	卷23	太師杜相公篇章真草過人遠甚 ……輒依韻和	七律	杜衍	真草	
25	卷24	答冲雅上人遺草書并詩	五古	冲雅上人	草書	
26	卷24	涇尉徐絳於其廡得魯公破碑二十六字 近又於碑陰得二十八字寄予……答之	七古	顏真卿	魯公體	
27	卷25	依韻和永叔澄心堂紙答劉原甫	七排			紙
28	卷25	潘歙州寄紙三百番石硯一枚	七古			紙硯
29	卷25	九月六日登舟再和潘歙州紙硯	七古			紙硯
30	卷25	湯珙祕校遺沈水管筆一枝	七古			筆
31	卷25	送杜君懿屯田通判宣州	雜言	杜君懿	?	
32	卷25	張聖民學士出御書并法帖共閱之	七古	御書	草,楷	
33	卷26	贈張伯益	雜言	張伯益	篆書	
34	卷26	觀邵不疑學士所藏名書古畫	五排	王羲之	?	書畫
35	卷26	觀王氏書	七古	王氏	大字	
36	卷26	泗州觀唐氏書	七絕	唐氏	草書	
37	卷26	表臣惠蜀牋借玉硯池	五律			紙
38	卷26	李宣叔祕丞遺川牋及粉紙二軸	五律			紙
39	卷26	銅雀硯	五古			硯
40	卷27	觀張中樂書大字	七絕	張中樂	大字	

41	卷27	王幾道罷磁州遺澄泥古瓦二硯	五古			硯
42	卷27	陸子履示秦篆寶	五古		篆書	
43	卷27	得福州蔡君謨密學書并茶	七古	蔡襄	草書	
44	卷27	得王介甫常州書	雜言	王安石	?	
45	卷28	雷逸老以仿石鼓文見遺因呈祭酒吳公	七古	雷逸老	石鼓文	
46	卷28	劉涇州以所得李士衡觀察家號蟾蜍硯……予與江鄰幾諸君和之	七古			硯
47	卷29	次韻永叔試諸葛高筆戲書	五古	歐陽脩	?	筆

만약 이들 시 중에서 文房四友를 읊은 시를 詠物詩의 범주에 넣거나, 酬答詩와 寄贈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書藝詩는 20여 수 남짓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文房四友 즉 紙(6수)·筆(5수)·硯(7수)·硯屏(3수)·墨(1수) 등을 읊은 시와 紙·筆이나 紙·硯이 함께 시체에 등장하는 시 3수, 石鼓를 읊은 <石鼓歌> 등은 詠物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으나, 이 시들은 서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서예도구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또 작품 속에 서예와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논급되었으므로, 이 시들은 서예시에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문방사우를 읊은 시를 별도의 한 장으로 설정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충아상인이 초서와 시를 남겨준 데 답하다(答冲雅上人遺草書并詩)>처럼 應酬나 答禮의 의례적인 酬答詩, <장백익에게 드리다(贈張伯益)>와 같은 寄贈詩, <둔전 두군위가 선주통판으로 부임하여 가는 것을 전송하다(送杜君懿屯田通判宣州)>와 같은 送別詩 등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도 같지만, 시 속에는 筆勢와 書法을 논하거나 서예가에 얽힌 일화와 서예 작품을 품평 내지 감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들 시 역시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7)</sup>

7) <왕안석이 상주에서 보내준 편지를 언다(得王介甫常州書)>는 시는 비록 서예와 관한 내용이 왕안석의 서체를 표현한 몇 구에 불과하지만, 왕안석의 서체

### Ⅲ.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 1. 古今의 書藝家를 거론함

唐代 서예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서예가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대 특정한 한 시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예가는 많아도 서너 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당대 서예시와 달리 매요신의 서예시에는 당대 서예시 전체에 등장하는 서예가만큼이나 많은 서예가가 등장한다. 전대의 유명 서예인으로는 鍾繇, 王羲之와 王獻之의 二王, 張芝, 歐陽詢, 褚遂良, 張旭, 智永, 懷素, 顏真卿, 李陽冰 등이 있고, 동시대의 유명 서예인 또는 유명인으로는 杜衍, 蔡襄(君謨), 歐陽脩, 王安石(介甫), 杜君懿 등이 등장하며, 동시대의 서예가이지만 현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는 胡霏然, 沖雅上人, 張伯益, 張中樂, 雷逸老, 山陽女, 王氏, 唐氏 등이 시제와 시 속에 보인다.

먼저 전대의 유명 서예인 중에는 단연 王羲之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대다수 서예가는 시제나 시구에서 한두 번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지만, 왕희지는 시제에 두 번, 시제 이외에 서예시의 시구 중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시제에 왕희지가 등장하는 <오충경이 비각에서 왕희지의 목적을 구경하다는 시의 운자에 맞추다(依韻吳沖卿祕閣觀逸少墨蹟)>(권23, 677쪽)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비각에서 왕희지 서예 眞迹을 보고서 느낀 감상을 적은 시이다.

奇哉王右軍,	기이하구나, 우군장군 왕희지여,
下筆若神聖.	붓을 대면 신과 성의 경지로다.
長戈與伏弩,	긴 창과 쇠뇌를 지닌 병사들이,
無不從號令.	호령을 따르지 않음이 없구나.

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賢豪雖林立,	현인 호걸이 비록 숲처럼 많아도,
帖歛孰敢競.	글씨로 누가 감히 겨룰 수 있나.
師徒氣揚揚,	군대의 사기는 의기양양하고,
龍虎旗正正,	용호의 깃발은 질서정연하여,
勝聲塞宇宙,	승리의 함성이 우주에 가득하니,
自昔無此盛.	예로부터 이처럼성한 적이 없도다.
赫赫猶至今,	赫赫한 공은 지금까지도 여전하니,
瑣瑣曷云並.	자질구레한 것을 어찌 함께 이르리오.
崇崇中祕書,	높고 높은 궁궐의 비서성에는,
濟濟士游泳.	위의 있는 여러 선비들 노니는데,
墨寶收盈厨,	귀작 가득 쌓이둔 보배로운 목적,
來觀遇已橫.	펼쳐 놓 것을 우연히 구경하였네.
始知前人蹟.	전인들의 진적을 처음 알게 되었으니,
鑄多自失勁.	빠어난 작품 많아 절로 힘이 빠지네.
紙素儻未壞,	흰 비단 종이 혹시 손상되지 않는다면,
萬古傳莫竟.	만고에 끝도 없이 영원히 전해지겠네.
一從歸人間,	한번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와서는,
夢寐不能更.	꿈속에서도 바꿀 수가 없다네.
但媿將短才,	단지 짧은 재주 지녔음 부끄럽지만,
輒爾接高詠.	문득 그대를 이어 고상하게 읊조려보았네.
何羞趙壹窮,	조일의 궁핍이 무엇 부끄러울까,
自有鍾嶸評.	절로 중영의 훌륭한 비평이 있는데.
嘗聞曹將軍,	일찍이 들었네, 曹景宗 장군은 개선하여,
尙諳賦競病.	오히려 경 병 險韻 두 자로 시를 지었음을.
我生羣俊末,	나는 여러 준걸들 말석에 자리하였으니,
貧賤亦足慶.	가난함과 천함도 축하할 만하다네.
文成終媿君,	문장을 이루어도 끝내 그대에게 부끄럽나니,
鉛刀值枯梗.	무딘 칼 같은 재주는 마른 가지 벨 정도라네.

秘閣에서 왕희지의 진적을 우연히 구경한 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비각에 보관된 무수히 많은 전인들의 보배로운 墨迹 중에서도 왕희지의 진적을 보고 놀란 심정을 조금은 과장되게 묘사하였다. 우군장군을 지낸 왕



희지의 이력을 적절히 융합하면서, 처음부터 기이한 필법의 왕희지 글씨를 신성시하였고, 비단 종이만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는 만고에 영원히 전해질 훌륭한 작품이라며 극도로 추켜세웠다. 이 시는 吳沖卿의 시에 화운한 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충경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謙辭로 시를 마무리하였다. 이밖에 시구에 왕희지가 출현하는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堪入右軍迹, 감히 왕희지의 경지에 들어서고자 하나,  
慙無幼婦辭. 매우 훌륭한 시문이 없어서 부끄럽다네.

<한옥여가 정심당지 두 축을 남겨주었다. 처음에는 구양수에게서 이 종이를 얻었고, 또 송차도에게서 얻었으며, 또 그대의 백씨인 한자화에게서도 얻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이다(韓玉汝遺澄心紙二軸初得此物歐陽永叔又得於宋次道又得於君伯氏子華今則四矣)>(권17, 401쪽)

樣傳孔子留廟堂, 모양은 공자에게 전해져 묘당에 남겨졌고,  
用稱右軍書裴几. 용도는 왕희지에 걸맞게 서재에서 쓰였네.

<정월 22일 강회에서 전운사 마찰원이 성문 밖에서 장강의 수록발운사 일을 감독하기에 내가 방문을 하였고 채군모도 왔다. 채군모가 진초서 몇 폭을 썼는데, 마찰원이 이 때 사용하던 흡연을 나에게 주었다(正月二十二日江淮發運馬察院督河事於國門之外予訪之蔡君謨亦來蔡爲眞草數幅馬以所用歙硯贈予)>(권22, 594쪽)

百金買書蒲葵扇, 글씨 사는 것은 비싼 값에 포규선을 사는 것 같으니,  
不必更求王右軍. 반드시 왕희지의 글씨를 다시 구할 필요 없겠네.

<사주에서 당씨의 글씨를 구경하다(泗州觀唐氏書)>(권26, 854쪽)

慙無右軍書, 왕희지 같은 글씨 없음이 부끄럽고,  
亦乏左思賦. 또한 좌사의 사부 작품이 부족하구나.

<표신이 은혜로이 촉지방 종이를 보내주어 옥연지와 짝하다(表臣惠蜀箋偕玉硯池)>(권26, 857쪽)

賦無左思作, 사부로 좌사와 같은 작품이 없고,  
書媿右軍寫. 서예는 왕희지 같은 글씨에 부끄럽네.

<왕기도가 자주자사를 그만두며 징니고와연 두 매를 남겨주다(王幾道罷  
磁州遺澄泥古瓦二硯)>(권27, 942쪽)

시의 주제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왕희지의 글씨를 최상의 서예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요신은 글씨에 관한 왕희지를 최고로 인정하였으며, 뛰어난 서예의 경지를 칭할 때 주로 왕희지를 단독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鍾繇와 왕희지를 합칭하거나, 王獻之를 왕희지와 함께 언급하기도 하였다.

鍾王眞蹟尙可觀, 중요와 왕희지의 진적을 항상 볼 수 있으니,  
歐褚遺墨非因模. 구양순과 저수량이 남긴 묵적은 모범이 아니었네.

<채군모 강인기와 함께 송중도의 서화를 구경하다(同蔡君謨江鄰幾觀宋  
中道書畫)>(권22, 590쪽)

蘇李爲奴令侍席, 소무와 이릉을 노복으로 삼아 곁에서 시중들게 하고,  
鍾王北面使持毫. 중요와 왕희지를 북면하여 붓을 들게 하였다네.

<태사 상공 두연의 문장과 진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후진들에게 특별히 추켜세우며 전해지는 시가의 운자에 맞추어 문득 화답하다(太師相公篇章眞草過人遠甚而特獎後進流於詠言輒依韻和)>(권23, 715쪽)

自慙把筆粗成字, 붓을 잡고 조잡한 글자 쓰는 것 스스로 부끄러운데,  
安可遠與鍾王陪. 어찌 멀리 중요와 왕희지에 짝할 수 있으리오.

<구양수가 정심당지를 읊어 유원보에게 답하다는 시의 운자에 맞추어 화답하다(依韻和永叔澄心堂紙答劉原甫)>(권25, 800~1쪽)

太守姓出東漢邕, 태수의 성씨는 동한 채옹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名齊晉魏王與鍾. 명성은 위진의 왕희지와 중요와 나란히 하네.

<북주 채군모 밀학의 글씨와 차를 얻다(得福州蔡君謨密學書并茶)>(권27,

964쪽)

羲獻墨迹十一卷, 왕희지와 왕헌지의 목적 십일 권은,  
水玉作軸光疏疏. 수정으로 족자를 만들었는지 광채 선명하구나.

<24일 강인기가 불러 삼관의 서화를 구경하고는 그날 본 것을 적다(二十四日江鄰幾邀觀三館書畫錄其所見)>(권23, 676~7쪽)

名書나 名書藝家를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왕희지를 가장 먼저 열거하고, 다음으로는 중요와 왕헌지를 왕희지와 함께 예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 매요신은 이들을 서예의 최고 경지 또는 준칙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요신의 서예시에는 동시대의 유명 서예인 또는 유명인으로 杜衍, 蔡襄, 歐陽脩, 王安石, 杜君懿 등이 등장한다. 구양수의 서예에 대해서는 “공께서는 천하의 재주를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마음 쓰는 것이 글씨 쓰는 것과 같네. 단정하고 힘 있게 뜻한 대로 글씨를 쓰는데, 일찍이 한 획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네. 이로 인해 종이에 쓴 글자를 보니, 크고 작은 글씨가 각자 소밀함을 얻었도다(公負天下才, 用心如用筆. 端勁隨意行, 曾無一劃失. 因看落紙字, 大小得疎密)”(<구양영숙이 제갈고필로 장난삼아 글씨 쓰다는 시에 차운하다(次韻永叔試諸葛高筆戲書)>권29, 1094쪽)라고 읊은 것이 있는데, 구양수는 실제로 글을 쓸 때 일필일획 모두 공을 들였으며 정신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필획이 가늘고 힘이 있다는 평가와 흡사한 듯 하다.<sup>8)</sup> 왕안석의 글씨에 대해서는 “비스듬히 봉해진 한 폭의 죽막지, 십칠행의 글씨가 그 위에 쓰여 있네. 글자는 여윈 가시나무 같이 검은 가시가 삐죽하고, 문장은 따뜻한 옥 같이 무지개 빛 찬란히 빛나네(斜封一幅竹膜紙, 上有文字十七行. 字如瘦棘攢黑刺, 文如溫玉爛虹光)”(<왕안석의 상주에서 보낸 편지를 얻다(得王介甫常州書)>권27, 983쪽)라고 간단히 언급하였

8) 劉濤·唐吟方 編著, 박영진·조한호 역, 《中國書藝術五千年史》(도서출판 다운샘, 2000.6), 261~262쪽

는데, 왕안석의 서예는 “대부분 뜻이 가는 대로 쓴 글씨로 본래부터 공교로움을 구하지 않은(多率意而作, 本不求工)” 글씨로, 蘇軾은 비록 이를 ‘無法之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지만,<sup>9)</sup> 매요신이 왕안석의 글씨를 여윈 가시나무 같이 빠죽하다는 표현은 매우 어울리는 비유인 듯하다.

蔡襄의 서예와 인품에 대해서는 “채군모는 글씨도 잘 쓰고 글자를 감별할 수도 있어(君謨善書能別書)”(<채군모 강인기와 함께 송중도의 서화를 구경하다(同蔡君謨江鄰幾觀宋中道書畫)> 권22, 590쪽)라고 하거나, “태수의 성씨는 동한 채옹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명성은 위진의 왕희지와 중요와 나란히 하네(太守姓出東漢邕, 名齊晉魏王與鍾)”(<북주 채군모 밀학의 글씨와 차를 얻다(得福州蔡君謨密學書并茶)> 권27, 964쪽)라고 채군모를 중요나 왕희지 또는 채옹에 비견하면서 극도로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태사 상공 두연의 문장과 진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후진들에게 특별히 추켜세우며 전해지는 시가의 운자에 맞추어 문득 화답하다(太師相公篇章眞草過人遠甚而特獎後進流於詠言輒依韻和)>(권23, 715쪽)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杜詩嘗說少陵豪,	두상공은 시에서 일찍이 두보의 호방함을 이야기하였으니,
祖德兼誇翰墨高.	조상의 덕을 뛰어난 문장과 서예와 함께 칭찬한 것이라네.
蘇李爲奴令侍席,	소무와 이릉을 노복으로 삼아 곁에서 시중들게 하고,
鍾王北面使持毫.	중요와 왕희지를 북면하여 붓을 들게 하였다네.
郊麟作瑞唯逢趾,	교외의 기린이 상서롭지만 오직 발자취만 만날뿐이고,
天馬能行不辨毛.	천마가 달릴 수 있어도 깃을 분별할 수가 없다네.
一誦東山零雨句,	시경 동산시의 영우 구절을 한 번 읊고는,
無心更學楚離騷.	무심하게 다시 초나라 이소경을 배운다네.

이 시에는 “두보의 할아버지인 두심언이 일찍이 스스로 일러 ‘나의 시는 소무와 이릉을 노복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의 서예는 중요와 왕희지를 북면

9) 劉濤·唐吟方 編著, 박영진·조한호 역, 위의 책, 272~273쪽 참조.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子美祖審言嘗自謂, 我詩可使蘇李爲奴, 我書可使鍾王北面)”는 自註가 달려 있다. 두연이 두심언과 두보의 후손이라,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언의 자신감 넘치는 호언장담을 끌어와 두연의 문학과 서예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두연의 서예에 대해서는 비록 梅堯臣 蔡襄 蘇軾 등이 모두 극찬하였지만, 지금 전해지는 두연의 서예는 필획이 가늘고 기세도 부족하여 몹시 산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될 만큼, 그다지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있다.<sup>10)</sup> 이들이 무엇 때문에 두연의 서예를 이렇게 높이 치켜세웠는지, 아마도 두연과의 친소, 두연의 지위, 현전하는 두연의 작품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매요신을 비롯하여, 송대 서예가들은 서예 작품을 평할 때 작품의 독창성과 서예가의 기품을 보다 더 중시하였지 글씨의 솜씨와 외형적 형태만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밖에 현재는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동시대의 서예가로 胡霏然, 冲雅上人, 張伯益, 張中樂, 雷逸老, 山陽女, 王氏, 唐氏 등이 시체에 등장하는데, <사주에서 당씨의 글씨를 보다(泗州觀唐氏書)>(권26, 854쪽)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唐氏能書十載聞,	당씨의 뛰어난 글씨 십 년 전부터 들었는데,
誰教精絕向紅裙.	누가 정묘하고 빼어난 글씨를 여인네에게 가르쳤나.
百金買書蒲葵扇,	비싼 값에 글씨 사는 것은 포규선을 사는 것 같으니,
不必更求王右軍.	반드시 왕희지의 글씨를 다시 구할 필요 없겠네.

《진서·사안전(晉書·謝安傳)》에 “어떤 사람 중에 중숙현의 관리를 그 만둔 자가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안을 방문하였다. 사안이 그에게 돌아갈 노자가 있는지를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포규선 오만 장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안이 이에 그 가운데 것을 취하여 손에 잡자, 경사의 선비와 시인들이 다투어 사들였고, 가격이 몇 배나 오르게 되었다(人

10) 劉濤·唐吟方 編著, 박영진·조한호 역, 위의 책, 258~259쪽 참조.

有罷中宿縣者，還詣安。安問其歸資，答曰，有蒲葵扇五萬。安乃取其中者捉之，京師士庶競市，價增數倍”고 한 고사를 인용하였는데, 시인이 얻은 당씨의 필적이 서예에 관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왕희지의 글씨만큼이나 훌륭하다는 표현은 아마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예가의 유명한 필적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서예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여러 서예가들 또한 그들의 작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인에 의해서 왕희지의 작품을 다시 구할 필요 없겠다고 그의 필적이 칭송되어진 唐氏 姓의 이 서예가가 바로 한 예일 것이다.<sup>11)</sup>

## 2. 多様な書體를 언급함

매요신의 서예시에는 또한 여러 가지 서체가 등장하는데, 크게 篆書, 飛白, 草書, 散草, 行書, 楷書 등이 보인다. 전서로는 石鼓文을 비롯하여 秦代의 전서(小篆과 大篆), 李陽冰의 전서, 張伯益의 전서 등이 보이고, 초서로는 王羲之의 초서, 懷素의 초서, 蔡襄의 초서(散草), 杜衍의 眞草, 唐氏의 초서, 張中樂의 초서 등이 등장하며, 楷書로는 왕희지의 隸書와 안진경의 隸書 및 御書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여러 서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

11) 楊克炎 選注,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71쪽의 주석에서 唐氏에 대해 夏敬觀은 “당씨는 아마도 자가 자정인 당이인 것 같다. 주장문의 《금사》에 ‘처사 당이는 자가 자정이며, 재주와 기예가 매우 높았으나, 살찌 은둔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서대 건중이 그 당시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일컬어졌는데, 자정의 글씨가 실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강동의 임포 역시 필묵의 기묘함을 칭찬하여 한 번 보고서 탄식하기를 「당공의 운필은 늙을수록 더욱 강건하다」고 하였다”(唐, 疑是唐異, 字子正. 朱長文琴史, 唐處士異, 字子正. 才藝甚高, 肥遯不出. 李西臺建中時謂善書, 而子正之筆實左右之. 江東林逋亦稱墨妙, 一見而歎曰, 唐公之筆老而彌壯)”고 인식하였는데, 이에 근거하면 당씨가 송초의 唐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朱東潤은 이 사람이 꼭 당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였고, 시에서 ‘붉은 치마(紅裙)’라 한 것을 보았을 때, 당이의 딸인 듯도 하다고 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한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朱東潤의 《梅堯臣集編年校注》 854쪽에도 언급되어 있다.

하는 것은 초서이며, 초서 중에도 채양의 초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다.

채양은 자가 君謨이며, 福建 仙游 사람인데, 북송 서단에서 시간적으로 蘇舜欽 이후, 蘇軾, 黃庭堅, 米芾 보다는 앞이다. 소식이 “근세의 서예로는 채군모를 제일로 칠 수 있다(近歲書以君謨爲第一)”고 하였는데, 그는 예서, 해서, 행서, 초서에 모두 능하였고, 옛 법을 잘 지켜낸 송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서예가라고 할 수 있다. 매요신 역시 동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서예가로 자신과 절친하였던 채양을 꼽았다.

먼저 <수양 두상공이 채군모의 신체 비초서에 답하다는 시의 운자에 맞추어 화답하다(依韻和睢陽杜相公答蔡君謨新體飛草書)>(권23, 695쪽)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sup>12)</sup>

丹砂篆印發題封,	붉은 인주에 전서 도장 찍힌 봉투를 펼쳐 보니,
雲母屏開照耀中.	운모 병풍이 밝은 빛을 발하며 활짝 열리네.
漠漠蛟綃吹入紙,	얇게 짠 투명 비단이 종이 위로 불어와,
翹翹蠹發卷隨風.	전갈 모양 빼어난 필획이 바람따라 펼쳐지네.
新番自與鴻都異,	새로운 종류라 절로 흥도문학과는 다르지만,
舊法唯應壘帚同.	옛날 법칙은 오로지 비백체에서 나온 것이네.
丞相報詩何處問,	승상께서 화답한 시는 어느 곳에서 물어보나,
清冷池上雁能通.	맑고 찬 못가에서 기러기가 능히 전해주네.

이 시는 杜衍의 시에 화운한 것이지만, 외형은 경쾌하고 짐획은 표일한 蔡襄이 창안한 散草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蔡襄은 散筆로 散草를 쓰는 법을 창제하여 한 때를 뒤흔들었으니, 沈括의 《夢溪筆談》 권18에서 “옛날 사람들은 산필로 예서를 써서 산예라고 하였다. 근세에는 채군모가 또 산필로 초서를 써서 산초라고 하였고, 혹은 비초라 하였다. 그 법은 모두 비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古人以散筆

12) 이 시는 文淵閣四庫全書의 《宛陵集》 및 다른 판본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殘宋本에만 보이는데, 朱東潤의 《梅堯臣集編年校注》 권23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다.

作隸書，謂之散隸。近歲蔡君謨又以散筆作草書，謂之散草，或曰飛草。其法皆生於飛白。亦自成一家”고 한 언급은 이 시에서 읊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며, 이러한 새로운 초서체가 당시에 성행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sup>13)</sup>

특히 散草書의 특징은 시의 둘째 연에서 그 대강을 엿볼 수 있다. 蛟綯는 전설에서 蛟人이 생사로 짠 가볍고 투명한 직물로, 飛草의 점획이 대부분 飛白이어서 투명한 교초가 종이 위에 펼쳐진 것 같음을 형용하였고, 蠶發은 고대 여자들의 머리 모양의 하나인데, 머리 끝부분이 굽어 위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 마치 전갈과 같아서 이렇게 칭한 것으로, 채양 비초의 점획이 강건하고도 경쾌한 특징을 형용하였다. 唐 張懷瓘의 《書斷上·飛白》에서는 “채옹이 대조문하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벽 바르는 솔로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서는 비백서를 만들었다(伯喈待詔門下，見役人以堊帚成字，心有悅焉，歸而爲飛白之書)”고 하였으니, 이 두 구는 채양이 창조한 散草와 옛날의 散隸는 비록 서로 다르지만, 둘 다 蔡邕이 창제한 飛白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채군모의 초서에 대해서는 이 시 외에 다른 시에서도 “이 때에 다시 중랑 채양이 있으니, 필법은 중횡을 내달리고 글자는 주옥과 같네. 대문으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종이 찾아 글씨를 쓰니, 글씨의 기세는 이무기가 날아 오르고 호랑이가 덮치듯 귀신을 놀라게 하네(是時復有蔡中郎，筆法縱橫字瑰璋。入門下馬索紙書，虬騰虎攫驚神鬼)”(<정월 22일 강회에서 전운사 마찰원이 성문 밖에서 장강의 수륙발운사 일을 감독하기에 내가 방문을 하였고 채군모도 왔다. 채군모가 진초서 몇 폭을 썼는데, 마찰원이 이 때 사용하던 흡연을 나에게 주었다(正月二十二日江淮發運馬察院督河事於國門之外予訪之蔡君謨亦來蔡爲眞草書數幅馬以所用歛硯贈予)>권22, 594쪽)라고 하거나, “그 바위 아래 장락태수 채양의 글씨가 있는데, 굳세고 강하며 변

13)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70쪽.



화가 괴이하여 연못 속의 신룡인 듯하네(其下長樂太守書, 矯然變怪神淵龍)”(<북주 채군모 밀학의 글씨와 차를 얻다(得福州蔡君謨密學書并茶)> 권 27, 964쪽)라고 읊기도 하였다.

스님이 쓴 초서에 대해 읊은 <충아상인이 초서와 시를 남겨준 것에 답하다(答冲雅上人遺草書并詩)>( 권24, 735쪽)는 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經月不出戶,	한 달이 지나도록 집밖을 나오지 않아,
堂上多綠苔.	당상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 끼었네.
忽有方外客,	홀연히 속세 떠난 스님이 손님으로,
衣披稻畦來.	옷을 헤치며 논두렁 넘어 왔네.
來從青山下,	청산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서는,
手把紈素裁.	손으로 고운 흰 비단 잡고 마름하여,
筆草數行字,	붓으로 초서 글씨 몇 행을 쓰니,
瘦蛇起春雷.	여윈 뱀이 봄날 우레에 일어나는 듯.
渴墨未散霧,	마른 먹빛은 흩어지지 않은 안개인가,
屈角麟欲開.	기린이 굽은 뿔을 펼치려는 듯하네.
裝爲兩大軸,	큰 족자 두 축으로 장정을 하여,
置我并瓊瑰.	옥같은 시와 함께 나에게 주었네.
懶曠長鬚奴,	게을러 눈 부릅뜬 긴 수염의 하인이,
掛壁不掃埃.	벽에 걸면서 먼지도 떨지 않았네.
智永與懷素,	지영과 회소라는 승려가 있어서,
其名久崔嵬.	그 명성 오래도록 우뚝하였지.
師今繼此學,	선사계선 지금 이들의 서학을 계승하여,
入神在徘徊.	입신의 경지에서 함께 배회하는구나.
未料輒以我,	나에게 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便比和羹梅.	문득 조화 이룬 화갱매에 비교하겠네.
我心常苦酸,	내 마음은 늘 괴롭고 쓰라리니,
得姓何可能.	성을 얻은들 어찌 ‘내’씨가 되리오. <sup>14)</sup>

14) 이 구절의 ‘能’ 자는 韻字로 보았을 때, 발음이 ‘능’이 아니라 ‘내’로 읽어야 하며, 이 경우 ‘세 발 자라’, ‘별 이름’, ‘사람의 성’ 등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아마도 충아상인의 속성이 ‘내’씨가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충아상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唐代의 지영과 회소처럼 초서를 잘 쓴 스님이었던 듯하다. 뛰어난 초서를 용과 뱀의 움직임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표현기법 중의 하나인데, 매요신 역시 이 시에서 충아상인의 초서를 여윈 뱀이 봄날 우레에 일어나는 듯하다고 비유하였다.

송나라 사람이 전서를 배움에는 대부분 李陽冰의 篆法을 종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쓴 전서는 당시에 매우 중시되었고, 탁본도 이미 당시 사대부들의 애장품이 되었다. 매요신 역시 구양수가 탁본을 하여 보내준 이양빙의 전서에 대해 “아울러 이양빙의 옛 전서를 보내주었는데, 글자 모양이 굳세고 강하여 용과 뱀이 일어난 듯하네(并寄陽冰古篆字, 字形矯矯龍蛇起)”(<구양수가 낭야산 이양빙의 전자 18자와 자신의 시 한 수를 보내면서 나보고 이어서 지었으면 하기에 14운을 지어 받들어 답하다(歐陽永叔寄琅邪山李陽冰篆十八字并永叔詩一首欲予繼作因成十四韻奉答)> 권16, 332쪽)라고 읊기도 하였고, 張伯益의 전서를 보고는 “용명한 기세로 붓을 찾아 소전을 쓰니, 이사가 다시 출현한 듯 진대의 비석만큼 고상하구나(勇氣索筆作小篆, 李斯復出秦碑高)”(<장백익에게 드리다(贈張伯益)> 권26, 846쪽)라고 읊어 大篆과 小篆의 훌륭한 작품을 찬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楷書에 대해서는 “가장 기이한 것은 작은 해서 글씨인 악의론인데(最奇小楷樂毅論)”(<24일 강인기가 불러 삼관의 서화를 구경하고는 본 것을 적다(二十四日江鄰幾邀觀三館書畫錄其所見)> 권23, 676쪽)라고 왕희지의 小楷 글씨를 극찬한 내용이 있다. <樂毅論>은 왕희지 46세에 쓴 왕희지 해서의 대표작으로, 아들인 王獻之가 글씨를 공부하도록 써준 것이라고 한다. 眞迹은 전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石刻인데, 세상에 전해지는 각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중 이 시에서 매요신이 보고 있는 秘閣本이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sup>15)</sup>

깨어진 비석에서 얻은 顏眞卿 글씨에 대한 감회를 읊은 <경현 현위인

15) 朱仁夫, 《中國古代書法史》(北京大學出版社, 1998.5, 3版), 171~172쪽 참조.

서강이 자기 마구간에서 부서진 안노공의 비석 글씨 26자를 얻고, 근자에 또 비석의 뒷부분에서 28자를 얻어 나와 오정중에게 부쳐왔다. 오정중이 시로 답하였기에 나도 답한다(溼尉徐絳於其廡得魯公破碑二十六字近又於碑陰得二十八字寄予及吳正仲正仲有詩答亦答之)>(권24 p.752)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sup>16)</sup>

顏公忠血化爲碧, 顏公奇筆留在石。 十存三四復不完, 完者椎模少稜壁。 許昌斷碣稱最佳, 已經田火侵鈎畫。 今復溼山好事人, 別識偶得從糞礫。 青天雲破星辰明, 牽牛牛沒河銀白。 日來翻覆又覩字, 久苦堙埋窟蝮蠃。 碑身上下亡八九, 况乃龜蚨與螻蛄。 不知歲月紀述由, 眞卿二字如新蹟。 蠶頭缺齧燕尾斷, 斬玉摧金競狼藉。 顏公名與喬嶽齊, 置在窮鄉猶棄擲。 孤城野鬼多神靈, 守此隳殘應自惜。 不虞發掘出幽沈,	안노공의 충성스런 피는 푸른빛으로 변화였고, 안노공의 기이한 필적은 비석 위에 남았구나. 열 가운데 서너 개 남고 또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것도 파고 본떠 조금씩 모서리 깎였구나. 허창의 부서진 비갈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밭 속에서 불에 타 갈고리 획 무더졌다네. 지금 다시 경산에 옛 일 좋아하는 사람 있어, 우연히 땅과 자갈 속에서 분별해 알게 되었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사라져 별들이 밝게 보이듯, 견우성 반쯤 기울고 은하수는 밝게 펼쳐졌네. 최근에 비석 뒤집어 또 몇 글자를 보았으니, 오래도록 괴롭게 땅강아지 굴에 묻혀 있었다네. 비신은 상하로 열 가운데 여덟이흠 없어졌으니, 하물며 귀부와 비석머리는 말하여 무엇 하리. 유래를 기술하려니 몇 년 몇 월인지도 알 수 없고, 진경이라는 두 글자만 새 글자처럼 분명하네. 누에머리 같은 글자 이 빠지고 제비꼬리 같은 끝 갈라져, 부서지고 깨어진 옥과 금들이 낭자하니 흠어졌네. 안노공의 명성은 큰 산과 높이를 같이 하는데, 궁벽한 시골에 두었으니 내다버린 것이나 다름없네. 외로운 성 들판의 귀신은 신령스러움 많다 하니, 무너져 내린 이 비석 지키느라 스스로 애석해 하였으리. 어둡고 깊은 곳에서 발굴되는 것 기대할 수 없어,
--	---

16) 이 시는 文淵閣四庫全書의 《宛陵集》 및 다른 판본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殘宋本에만 보인다.

泣雨霏霏愁向夕. 비 오듯 눈물 흘날리며 근심스레 저녁을 맞았으리.

.....

.....

당대와는 달리 북송인들은 論書에서 人品과 書品の 관계를 중시하여, 송대에는 인품과 서품을 하나로 보는 기풍이 더욱 강하였는데, 이 시는 이미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인품과 서품을 연관 짓는 기풍을 열어젖혔다. 이미 무너지고 부서져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안진경의 글씨를 부서지고 깨어진 옥과 금이라 칭찬하면서, 이는 그의 충절과 절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연중에 암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王安石의 시에서도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sup>17)</sup> 송대인들이 서예에 있어서 뜻을 중시하고

17) 이 시와 유사한 王安石의 시로 <오장문이 안진경의 글이 새겨진 부서진 비석을 새로 얻다(吳長文新得顏公壞碑)>라는 시가 한 수 있는데, 여기에 소개한다. “魯公之書既絕倫, 歲久更爲時所珍. 荒壇壞冢朽屋屋, 剝落風雨埋煨塵. 斷碑數尺誰所得, 點畫入紙完如新. 延陵公子好事者, 拓取持寄情相親. 六書篆籀數變改, 訓詁後世多失真. 誰初妄鑿妍與醜, 坐使學士勞骸筋. 堂堂魯公勇且仁, 出遇世難親經綸. 揮毫卓犖又驚俗, 豈亦以此誇常民. 但疑技巧有天得, 不必勉強方通神. 詩歌甘棠美召伯, 愛惜蔽芾由思人. 時危忠誼常恨少, 寶此勿復令埋堙.”(안노공의 글씨는 이미 비할 데 없이 뛰어난데, 세월 오래 되니 세상에서 더욱 귀한 것이 되네. 황폐한 제단 무너진 무덤 쇠락한 높은 집에, 비바람에 점획 떨어지고 재와 먼지에 매몰되었네. 몇 자 되는 부서진 비석을 누가 얻었는지, 점과 획을 종이에 탁본하니 완전히 새로워졌네. 연릉 공자 오장문은 좋아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 탁본을 구해 나에게 보내주니 정이 서로 도탑네. 육서의 전서와 주서는 여러 번 변화하고 바뀌어, 후세에 훈고를 하였지만 진의를 잃은 게 많다네. 누가 처음 망령되어 아름다움과 추함을 조각하여, 공연히 학자와 문인들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였다. 당당한 안노공은 용기 있고 또 인자하여, 세상 난리를 만났으나 친히 국가 대사를 다스렸네. 휘호를 하면 탁월하고 또 세상을 놀라게 하였으니, 어찌 이것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과장을 하리오. 다만 교묘한 기교는 하늘로부터 얻는 것이라 여기니, 억지로 하지 않아도 바야흐로 신명과 통한다네. 시경의 시중에 <감당>편은 소백을 찬미하였는데, 수목 무성함을 애석히 여기고 그를 그리워하였다네. 위태로운 때라 충정한 행위 적음을 항상 한하나니, 이 보물이 다시 매몰되고 막히게 하지 말지어다.)” 이 시에는 첫째, 북송 때에 안진경의 해서를 배우는 자들이 매우 많아, 설령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진 碑礪이라도 엄청난 보옥처럼 진중히 여겼다는 것이고, 둘째, 인품과 서품의 관계를 제기하여 서품의 우열은 인품의 고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셋째, ‘몸과 근골을 수고롭게 하는(勞骸筋)’ 힘든 서예 학습방법에 대해 이의

자이를 중시하는 경향은 이 시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 3. 文房四友의 愛好와 관심

文房이란 선비들의 방, 즉 문인들이 책을 보고 벗과 더불어 시를 읊고 서화를 논하고 담소하는 공간이다.<sup>18)</sup> 그런데 이 문방에 없어서는 안 될 紙[종이] 筆[붓] 墨[먹] 硯[벼루] 4가지를 문방의 四寶, 四友, 四侯, 四譜<sup>19)</sup>라 하였고, 이를 文房四寶 또는 文房四友라 함칭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문방사우라 칭하며 이를 紙筆墨硯의 순으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문방사보라 칭하면서 이를 紙墨筆硯 또는 硯紙筆墨 순으로 나열하였다.<sup>20)</sup>

중국은 예로부터 붓을 서사도구로 삼았고, 고래로 중국의 문인 학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로, 필사도구인 종이 붓 베투 먹을 서사도구로 사용하여 필사를 하였으므로, 서예가가 아니더라도 문방사우는 문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생활도구였다. 문인 학자들 모두 지필연묵 등의 서사도구를 사용하여 글씨를 써 왔기 때문에 그들이 쓴 글씨가 결국은 서예 작품이었고, 그들 역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서

를 제기하여 “기교는 천부적으로 얻는 것(技巧有天得)”이며 “억지로 신명과 통하려 할 필요가 없다(不必勉強方通神)”고 인식한 것 등 세 가지 점을 주의할 만하다. 왕안석의 서예는 “대부분 뜻이 가는 대로 쓴 글씨로 본래부터 공교로움을 구하지 않았다(多率意而作, 本不求工)”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의 이러한 주장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 시는 《臨川文集》 권9 古詩에 실려 있으며, 위의 두 시에 나오는 오정중과 오장문[吳奎]은 다른 사람이다.

18) 文房의 사전적 의미도 文翰을 다루는 문사들의 방이란 의미로 풀이하였다.

19) 四寶는 徽州府와 歙縣에 지필연묵의 문방사우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四寶堂이라는 가게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사후란 사우를 擬人化하여 각각 벼슬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종이는 好時候 楮知白, 붓은 冠城侯 毛元銳, 먹은 松滋侯 易玄光, 베투는 卽墨侯 石虛中이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다. 四譜라는 말은 宋나라 蘇易簡이 《紙譜》《筆譜》《硯譜》《墨譜》라는 4가지 책을 저술한 데서 유래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네 가지 문방구의 나열 순서는 서로가 조금 다른데, 본고에서는 문방사우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0) 이경노, 《문방사우》(빛갈 있는 책들), 대원사, 2001, 6쇄.

예가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서예 수준과 서예에 대한 안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魏晉南北朝 시대에 문방사우를 읊은 현전하는 시가는 붓을 읊은 시 2수(梁武帝 蕭衍과 徐摛의 <詠筆詩>), 종이를 읊은 시 4수(梁宣帝 蕭詧의 <詠紙詩>와 江洪의 <詠紅箋詩>와 陳頊의 <詠紙詩>와 薛道衡의 <詠苔紙詩>), 그리고 筆格(붓걸이: 梁簡文帝 蕭綱의 <詠筆格詩>)을 읊은 시 한 수 등 총 7수만이 있을 뿐이다.<sup>21)</sup> 위진남북조 시대보다는 많지만, 당대에도 종이를 읊은 시 1수, 붓을 읊은 시 3수, 벼루를 읊은 시 19수, 먹을 읊은 시 5수 등 《全唐詩》 전체를 통틀어 총 28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매요신 한 사람이 문방사우를 읊은 시는 종이 9수(1수는 붓과 2수는 벼루와 중복), 붓 6수(1수는 종지와 중복), 벼루 9수(2수는 종지와 중복, 硯屏 3수 별도), 먹 1수 등 모두 25수나 되어, 당대 전체의 문방사우를 읊은 양만큼 되었다. 문방사우에 대해서는 南唐과 宋初에 이미 澄心堂紙와 李廷珪墨과 諸葛氏筆과 龍尾歙硯을 최상의 것으로 여겨 ‘文房四寶’라 칭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 매요신이 이들 최상의 문방사우 제품을 애호하면서 吟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을 듯하다.

먼저 매요신의 시중에서 종이를 읊은 시는 澄心堂紙 6수(2수는 벼루와 중복), 蜀牋 1수, 蜀牋 南牋 합쳐 1수(붓과 중복), 川牋과 粉紙 합쳐 1수 등 총 9수가 있다. 이중 澄心堂紙에 관한 시는 歐陽脩가 2폭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시, 宋次道가 100폭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답시, 韓玉汝가 2축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시, 구양수가 澄心堂紙 시로 劉原甫에게 보내며 답한 시에 차운한 시, 그리고 歙州知州였던 지인 潘夙(字는 伯恭)이 벼루와 함께 보내준 징심당지에 감사하는 시 2수 등 총 6수가 있다. 여기서는 <한옥여가 징심당지 두 축을 남겨주었다. 처음에는 구양수에게서 이 종이를 얻었고, 또 송차도에게서 얻었으며, 또 그대의 백씨인 한자화에 게서도 얻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이다(韓玉汝遺澄心紙二軸初得此物歐陽永

21) 禹在鎬, 앞의 논문, pp.147-148.

叔又得於宋次道又得於君伯氏子華今則四矣)>(권17, 401쪽)라는 시를 한 수 보자.

三得澄心紙,	이전에 정심당지를 세 번 얻었는데,
吾嘗再有詩.	나는 일찍이 두 번을 시로 남겼었네.
粗能條本末,	거칠게나마 본말을 조리 있게 서술하였으나,
不復語興衰.	흥쇠에 대해서는 다시 더 언급하지 않았었네.
堪入右軍迹,	감히 왕희지 서예의 경지에 들어서고자하나,
慙無幼婦辭.	매우 훌륭한 시문이 없어서 부끄럽네.
君家兄弟意,	그대 집안 형제의 따뜻한 마음을,
將此比烏絲.	이로써 오사란 종이에 비교하려네.

정심당지는 南唐의 후주 李煜이 만든 얇고 윤기 나는 종이로, 南唐의 烈祖 李昇의 室名인 澄心堂에서 이름을 취하였다. 남당이 멸망한 뒤에도 줄곧 궁중의 창고에 남아 있던 이 정심당지는 북송의 대신 劉敞(자는 原父)에 의해 발견되었고, 황제의 동의를 얻은 유창이 이 궁중 창고에서 정심당지 백 폭을 가져 나와 歐陽脩에게 10장을 선물하였는데, 이 10장 중에 2장이 姜道潛에게까지 전해졌다. 姜道潛은 맨 처음 歐陽脩에게 정심당지 두 폭을 받고서 <歐陽脩가 정심당지 두 폭을 보내주다(永叔寄澄心堂紙二幅)>(권10, 156쪽)를 비롯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종이를 받을 때마다 이를 시로 남겼다. 특히 처음 정심당지를 받고는 이에 대해 “부드럽기가 봄 얼음 같고 조밀하기가 누에고치 같다(滑如春冰密如繭)”고 표현하였으나, 宋次道에게 정심당지 백 폭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나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 매번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대는 또 무엇 때문에 나에게 백 폭을 남겨주었나(我不善書心每媿, 君又何此百幅遺)”(<학사 송차도가 정심당지 백 폭을 부쳐주다는 시에 답하다(答宋學士次道寄澄心堂紙百幅)>(권16, 335쪽))라고 姜道潛 스스로 과분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구의 烏絲는 원래는 비단이었으나, 후에는 검은 격자선이 있는 귀한 종이를 지칭하기도 한 오사란 종이를 가리킨다.

붓을 읊은 매요신의 시로는 斑竹管筆 1수, 松管筆 3수(1수는 종이와 함께 출현), 沈水管筆 1수, 諸葛高筆 1수(諸葛氏筆은 시구에서도 2번 출현) 등 총 6수가 있다. <구화산의 은사 거진생이 송관필을 보내주다(九華隱士居陳生寄松管筆)>(권19, 524쪽)를 한 수 보도록 한다.

春松抽瘦梗,	봄 소나무에서 여윈 옹이 뽑아내어,
削束費長毫.	깎아낸 묶음에 긴 털을 소모하였네.
雞距初含潤,	닭머느리 발톱처럼 윤기를 머금었고,
龍鱗不自韜.	용의 비늘처럼 재주 절로 감출 수 없네.
嘗爲大夫後,	일찍이 공경대부를 뒤따라 다니며,
欲寫伯夷高.	백이와 같은 고상함을 쓰려고 하였지.
一獲山家贈,	산가에서 한 자루 주는 것을 얻었으나,
畧吾媿汝曹.	재주 없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구나.

松管筆은 筆管이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졌으리라 유추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붓인지를 알 수 없다.<sup>22)</sup> 매요신이 이 시에서 사용한 雞距라는 용어는 후에 붓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매요신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붓 자체의 형태와 모양을 읊었으나, 후반부에서는 문인이 사용하는 붓이 지닌 상징성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매요신이 벼루를 읊은 시로는 端州[溪]硯 2수, 歙(州)硯 3수(2수는 종이와 중복), 古硯 1수, 銅雀硯 1수, 澄泥古瓦硯 1수, 蟾蜍硯 1수 등 9수가 있고, 이에 더하여 硯屏을 읊은 시가 3수 더 있다. 예로부터 名硯으로 알려진 흡연과 名紙인 징심당지를 함께 읊은 <반흡주가 종이 삼백 장과 용미연 한 매를 보내주다(潘歙州寄紙三百番石硯一枚)>(권25, 806쪽)라는 시 한 수를 보도록 한다.

22) 文淵閣四庫全書에도 송관필을 언급한 문헌으로 매요신 《宛陵集》의 이 시와 宋代 孔武仲의 《清江三孔集》 卷6의 <구화산의 송관필을 읊다(賦得九華松管)>라는 작품만 있을 뿐이다. 붓을 다룬 어떠한 문헌에서도 송관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고찰을 필요로 한다.



永叔新詩笑原父，	구양영숙이 새로운 시에서 유원보를 비웃었음은，
不將澄心紙寄予。	징심당지를 나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네.
澄心紙出新安郡，	징심당지는 신안군에서 산출되는데，
臘月敲冰滑有餘。	선달에 지치는 얼음인 듯 미끄럽기 한이 없네.
潘侯不獨能致紙，	반흡주는 단지 종이만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羅紋細硯鐫龍尾。	나문 무늬에 조각 빼어난 용미연도 주었지.
墨花磨碧涵鼠鬚，	푸른 옥을 간 듯한 먹빛에 서수필을 담그니，
玉方舞盤蛇與虺。	옥류는 뱀과 이무기가 벼루에서 춤추는 듯하네.
其紙如彼硯如此，	종이는 그와 같고 벼루는 이와 같으니，
窮儒有之應瞰鬼。	가난한 선비는 이것만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으리.

첫째 연에서는 구양수가 징심당지로 유원보에게 운자를 맞추어 지은 답시 <유원보의 징심당지 시에 화운하다(和劉原父澄心紙)>(《文忠集》 권5, 古詩)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에는 북송의 대신 劉敞이 황제의 동의를 얻은 궁중 창고에서 징심당지 백 폭을 가져 나와 歐陽脩에게는 10장을 선물하였으나 매요신에게는 주지 않은 일 등을 서술하였다.<sup>23)</sup> 歙硯은 安徽省 남쪽의 歙州(지금의 歙縣 婺源縣 龍尾山에서 산출되는 연석으로, 용미산이 흡주에 있으므로 흡연, 흡주연, 또는 龍尾硯이라고 한다. 석질이 치밀하고 무늬가 특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며, 같은 흡연 중에서도 물속에서 나는 용미연이 석질이 부드럽고 두드리면 맑은 옥소리가 나는 좋은 품질의 연이며, 이외에도 眉子石과 羅紋石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sup>24)</sup> 위의 시를 지은 며칠 후, 이 시의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은 <구월 육일 배에 오르며 반흡주가 보내준 종지와 벼루 시에 다시 화운하다(九月六日登舟再和潘歙州紙硯)>(권25, 809쪽)라는 시의 첫 구절에서 매요신은 “문방사보가 이 두 군에서 나오니(文房四寶出二郡)”라고 文房四寶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sup>25)</sup> 이는 문방사보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용례로

23) 詩題가 <받들어 징심당지를 읊조리다(奉賦澄心堂紙)>로 된 판본도 있다.

24) 이경노, 앞의 책, 87-88쪽 참조.

25)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문방사보가 이 두 군에서 나오니, 이로부터 그대와 나는 이를 감상하고 아꼈다네. 나는 옛 징심당지의 모양을 문장으로 전

알려져 있다.<sup>26)</sup>

매요신의 문방사우에 대한 애호는 애호의 수준을 넘어 귀중품 내지는 골동품의 진위 감별과 고증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蟾蜍硯을 읊은 <유경주가 이사형 관찰사 댁에서 섬서연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벼루 아래에 ‘천보 8년 겨울 단주자사 이원덕이 영란석으로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어 유원보에게 보였다. 유원보는 마침 나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분별하여 ‘천보 때에는 해를 ‘載’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年’이라고 하였으니, 가짜이다’라고 하였다. 이 일로 마침내 시를 지었으니 나와 강린기 등 여러 명이 이 시에 화답하였다(劉涇州以所得李士衡觀察家號蟾蜍硯其下刻云天寶八年冬端州刺史李元德靈卵石造示劉原甫原甫方與予飲辨云天寶稱載此稱年僞也遂作詩予與江鄰幾諸君和之)>(권28, 1058쪽)는 긴 제목의 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매요신의 시중에서 먹을 읊은 시는 新羅墨을 읊은 <조택지가 신라먹을 보내준 것에 답하다(答祖擇之遺新羅墨)>(권18, 426쪽)가 유일하다.

海上老松死,	바닷가 해변의 말라 죽은 소나무에,
霹靂燒瘦龍.	벼락 내려쳐 여윈 용 같은 가지 태웠다네.
胡人犀皮膠,	호인들이 물소 가죽을 아교처럼 녹여서,
團煤煙膏濃.	그을음에 짙은 기름 섞어 둥글게 만들었네.
色奪陽鳥翅,	빛같은 태양의 검은 까마귀 깃을 빼앗아,

해주었는데, 그대는 이를 만들었으니 훌륭한 마음 남음이 있네. 이로부터 거듭 남당의 징심당지를 읊어, 장차 세상 사람들이 징심당지의 역사를 알게 하였다네. 또 물속에서 벽옥 같이 기름진 돌을 얻었는데, 냇가 장인은 살모사를 안은 듯 지니길 두려워하였네. 삼가 선물해준 두 진귀한 물건 사양할 수 없으나, 나 이 들고 늙어 단지 귀신을 회롱할까 두렵네.(文房四寶出二郡, 邇來賞愛君與予. 予傳澄心古紙樣, 君使製之精意餘. 自茲重詠南堂紙, 將令世人知首尾. 又得水底碧玉腴, 溪匠長持如抱虺. 拜貺雙珍不可辭, 年衰只怕撇揄鬼.)”

26) 문방사보의 명칭 및 유래에 대해 《辭海》와 《漢語大詞典》 등 대부분의 전적에서는 매요신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陳濤, <文房四寶形成論>(《中國史研究》 제58집, 2009.2) 2장 <문방사보의 명칭과 유래에 관한 여러 가지 설>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來涉溟渤重.    검푸른 넓은 바다를 거둬 건너 왔다네.  
君獲乃爲贈,    그대가 얻어서는 나에게 보내주니,  
我謬蟲鳥蹤.    내가 조충서의 자취를 어지럽히겠네.  
且作異土玩,    또한 이역 지방의 놀이감으로 삼으면,  
不愧西域筵.    서역 지팡이에도 부끄럽지 않겠네.

매요신은 친구인 祖無擇(字가 擇之)이 보내준 신라목을 받고는 이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였다. 新羅墨은 신라에서 만든 먹으로 통일신라와 교역을 하였던 일본에서는 아주 귀중한 교역 물건이었다.<sup>27)</sup> 먹은 주로 松烟(소나무 그을음)을 모아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唐末에도 奚超가 송연목을 제조하였고 또 그의 아들 李廷珪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여러 종류의 먹을 창제하였으므로, 당시 송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종류의 먹이 생산되고 있었지만, 아마도 신라 송연으로 만든 신라목의 품질이 좋아 그 당시에는 아주 귀중한 문방구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 VI. 결 론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2,907수의 梅堯臣 시 중에서 書藝詩 46題 47首를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全唐詩》에 실린 48,000여수의 시중에서 書藝詩로 선별할 수 있는 시들이 총 91題 92首 정도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수량에 있어서 매요신은 唐代에 지어진 전체 서예시의 절반을 넘을 만

27) 일본 東大寺 正倉院에서 발견된 ‘買新羅物解’에 나타난 품목 중에는 新羅墨, 신라종, 신라금, 佛具 등 다양한 물품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2002, 학연문화사), 53쪽 등. 이 신라먹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에 먹 생산 수준과 품질이 상당히 높았으며, 당시 楊家, 武家라는 공인집단이 먹 생산할 정도로 먹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나 서역, 아라비아 등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주로 신라를 거쳐야 했는데, 후에는 이 먹들이 국제무역으로 일본 뿐만아니라 중국 송나라에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큼 많은 서예시를 창작하였으니, 매요신의 서예시는 결코 적지 않다. 아울러 宋代 들어서도 매요신 이전에는 서예시를 창작한 시인이 거의 없었고, 매요신 이후 宋初 四大書藝家라 불리는 蔡襄, 蘇軾, 黃庭堅, 米芾 등이 서예시를 다수 창작하였다.<sup>28)</sup> 따라서 서예시를 짓는 기풍이 이로부터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매요신은 송대 서예시에 있어서 창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매요신이 宋詩의 開山祖師라 칭하여지는 방증으로 서예시 하나만을 제시하여도 충분할 듯하다.<sup>29)</sup>

매요신의 서예시에는 당대 서예시 전체에 등장하는 서예가만큼이나 많은 古今의 서예가가 등장하며, 또한 다양한 書體가 등장한다. 전대의 유명 서예가로는 鍾繇, 王羲之와 王獻之의 二王, 張芝, 歐陽詢, 褚遂良, 張旭, 智永, 懷素, 顏真卿, 李陽冰 등이 있고, 동시대의 유명 서예가로는 杜衍, 蔡襄, 歐陽脩, 王安石, 杜君懿 등이, 동시대의 서예가이지만 현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는 胡霽然, 冲雅上人, 張伯益, 張中樂, 雷逸老, 山陽女, 王氏, 唐氏 등이 시제와 시 속에 등장한다. 서체로는 크게 篆書, 飛白, 草書, 散草, 行書, 楷書 등이 보인다. 王羲之와 王獻之, 鍾繇, 張芝, 張旭 등을 추켜세운 것은 당대 서예시에서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歐陽詢과 顏真卿에 대한 관심은 당대 서예시에서 歐陽詢과 顏真卿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이다. 특히 文房四友에 관한 시는 唐代 전체 기간에 지어진 시 만큼이나 많은 양의 시를 창작하였다. 매요신의 문방사우에 대한 애호는 기호의 수준을 넘어 귀중품 내지는 골동품의 진위 감별과 고증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서예시와는 달리, 매요신의 서예시는 한 수 전체가 서예에 관한

28) 우선 《全宋詩》에서 詩題만으로 선별해 보았을 때, 송초 사대서예가들이 남긴 서예시의 양은 대략 蔡襄이 5수, 蘇軾이 46수, 黃庭堅 34수, 米芾이 23수를 남기고 있었다. 특히 미불은 현존하는 전체 시가 244수인데, 서예시가 23수나 되므로 전체시에서 서예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9) 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권174 詩話(四部叢刊初編縮印本, 上海, 商務印書館), 1551쪽 “송조의 시는 오직 매요신이 창시자인 개산조사이다(本朝詩惟宛陵爲開山祖師)”

내용으로 완전히 접철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서예와 관련한 내용이 전체 시 속에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 즉 한 수의 시 속에서 전문적인 書論을 일관되게 전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변 인물들과의 교제의 매개물인 듯한 그의 시를 보았을 때, 비록 書論이 시 속에 부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요신의 서예 감상 수준은 거의 전문가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서예시가 열정적인 가송을 위주로 하는 것과는 구별되게, 宋인들이 지은 서예시는 이성적인 평가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매요신의 서예시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매요신의 서예시만을 가지고 당대 서예시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므로, 송초 四大書藝家인 蔡襄, 蘇軾, 黃庭堅, 米芾 및 歐陽脩와 王安石 등의 서예시를 고찰한 후에라야, 당대와 송대 서예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 및 서예시의 형식적인 특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어보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朱東潤 校注, 《梅堯臣集編年校注》(上中下),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梅堯臣, 《宛陵集》,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歐陽脩, 《歐陽脩全集》(上·下), 世界書局, 中華民國72年, 臺北.  
 蘇舜欽 著, 宋龍準 譯, 《蘇舜欽詩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4.  
 王安石, 《王文公文集》(上·下), 上海人民出版社, 1974.7.  
 《全唐詩》(上·下),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再版.  
 《全宋詩》(全72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費振剛 等輯校, 《全漢賦》, 北京大學出版社, 1993.4.

- 遂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上中下 3冊), 中華書局, 1995, 3版.
-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 劉濤·唐吟方 編著, 박영진·조한호 역, 《中國書藝術五千年史》, 도서출판  
다운샘, 2000.6.
- 朱仁夫, 《中國古代書法史》, 北京大學出版社, 1998.5, 제3판.
- 이겸노, 《문방사우》, 빛깔 있는 책들, 대원사, 2001, 6쇄.
- 李佳行 編著, 《文房四寶》 <紙>, 中國華僑出版社, 2008.3, 北京.
- 沈 婷 編著, 《文房四寶》 <筆>, 中國華僑出版社, 2008.3, 北京.
- 楊白水 編著, 《文房四寶》 <硯>, 中國華僑出版社, 2008.3, 北京.
- 文 周 編著, 《文房四寶》 <墨>, 中國華僑出版社, 2008.3, 北京.
- 張彥遠, 《書法要錄》(中國美術論著叢刊), 人民美術出版社, 2005.11.
-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上海辭書出版社, 1986 初版.
- 文明淑, <梅堯臣詩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6.
-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 陳 濤, <文房四寶形成論>, 《中國史研究》 제58집, 2009.2.
- 이기범, <중국논서시 소고>, 《漢文古典研究》 第15輯, 2007, 53-70쪽.
- 金光郁, <中國의 論書詩 研究>, 한국서예학회, 1999년 동계학술발표집, 《書  
藝學研究》 創刊號, 2000.5.
- 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 禹在鎬,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5): 宋代1>, 嶺南大中國文學研究室 刊, 《中  
國語文學譯叢》 第30輯, 2009.5, 281-300쪽.
- \_\_\_\_\_,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6): 宋代2>, 嶺南大中國文學研究室 刊, 《中  
國語文學譯叢》 第31輯, 2009.11, 209-224쪽.

## &lt; 中文提要 &gt;

## 梅尧臣书法诗的特征

本论文以现存的梅尧臣的2,907首诗中被分类为书法诗的46题47首为研究对象。与收录于《全唐诗》的48,000多首的诗中被遴选为书法诗的共计91题92首相比,可知梅尧臣创作的书法诗,其数量之多不亚于唐代的书法诗。并且到了宋代,在梅尧臣之前没有哪位诗人创作过如此之多的书法诗,梅尧臣之后宋初的四大书法家——蔡襄、苏轼、黄庭坚、米芾等创作了大量的书法诗,如果说书法诗的创作之风是从此时开始普遍形成的话,那么梅尧臣在宋代书法诗上的倡导者地位便可一目了然了。

梅尧臣的书法诗中为数众多的古今书法家相继出现,其数量不亚于唐代全部书法诗中出现的书法家的数量,而且书体也极为多样。前代著名书法家钟繇、素有二王之称的王羲之与王献之、张芝、欧阳询、褚遂良、张旭、智永、怀素、颜真卿、李阳冰等,同一时代的著名书法家杜衍、蔡襄、欧阳脩、王安石、杜君懿等,虽是同一时代的书法家但今日鲜为人知的胡霏然、冲雅上人、张伯益、张中乐、雷逸老、山阳女、王氏、唐氏等相继在其诗题与诗中出现。书体大致显现出篆书、飞白、草书、散草、行书、楷书等。吹捧王羲之和王献之、钟繇、张芝、张旭等的风气与唐代书法诗相似。尤其是关于文房四友的诗,其数量之多可与整个唐代创作的此类诗相媲美。由此可知,梅尧臣对文房四友的喜好已超出了爱好的水准,达到了鉴赏与考证贵重物品乃至古董的真伪的水准。

与唐代的书法诗不同的是,梅尧臣的书法诗中极少有一整首诗完全论及书法的内容的情况,大部分都是整首诗中部分内容与书法有关。即在一首诗中以专门的书论一贯展开叙述的情况不甚其多,在欣赏与周围人物的交际的媒介物——他的诗时,通过部分的描述也可知其书法欣赏水准几乎达到了专家的境界。与一般唐代书法诗以热情歌颂为主迥然不同的是,宋人创作的书

法诗显现出更重视理性评价的特征，这从梅尧臣的书法诗中便可窥其端倪。

주제어 : 梅尧臣, 书艺诗, 书艺家, 书体, 文房四友, 全宋诗, 宋诗